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6호 [루게 제2537호]

주제 108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음력 3월 11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사설 절세위인들의 뜻을 받들어 평화번영과 통일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자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하는 우리 겨레는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위업이었으며 절절한 념원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변함없이 견지하신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로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전민족의 흥성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어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령도하신분도 위대한 수령님이시고 반통일세력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분쇄하고 격계상대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신분도 수령님이시었다.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어느 하루도 심려하시지 않은 날이 없으며 어느 한때도 편히 쉬신 날이 없으시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통일대강들을 제시하시어 겨레에게 안겨주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커다란 업적이다.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 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통일대강들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겨레는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속망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불멸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족대단결의 가치이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강화하시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그 위력은 민족대단결에 있다. 주체적통일력량이 튼튼히 마련될 때 조국통일위업의 승리가 확고히 담보된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적단결의 기초로 삼으시고 사상과 리념, 정경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숭고한 민족애와 넓은 도량을 지니신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리념, 수령님께서 지니신 고결한 인간애와 민족애는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과감히 나서게 한 원동력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조국통일의 가치이래 결속시키기 위한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고 통일위업수행의 주체적력량은 전민족적범위로 확대강화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었다.

수령님께서 벌리신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공화국의 조국통일로선의 정당성이 세계 각국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지지와 련대성이 강화되었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여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고령의 불편한 몸이시에도 불구하고 애국애족으로 불타는 위대한 생애의 나날을 이어오시었으며 북남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력사적인 문건을 한 장한장 번져가시며 고귀한 친필을 남기시었다.

한평생 오로지 애국애족의 거룩한 자욱을 새겨가시며 조국통일위업실현의 튼튼한 토대를 닦으신 위대한 수령님은 진정 영원한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 이 관철할실 애국애족의 일념을 안으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자주통일위업실현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찰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어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해주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천명하시어으로써 통일로 가는 겨레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오늘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위업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며 온 민족을 평화번영과 조국통일의 한길로 이끌어가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최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밑에 새로운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숭고한 민족애,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하루빨리 앞당겨오시려는 애국애족의 열정과 담대한 결단, 확고한 의지가 있어 지난해에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는 사변

이 일어났으며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어 온 겨레에게 크나큰 기쁨과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었다.

우리 겨레는 미증유의 사변들로 훌륭히 장식한 지난해의 귀중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올해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온 겨레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벌려야 한다.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내야 한다.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것은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려는것은 온 겨레의 절박한 념원이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대관계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전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

온 겨레는 조선반도평화의 주인인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체단결하여 이 땅의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게 될것이다.

현시기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문제를 놓고 외세의 비위를 맞추려 하고 그의 지지를 받아 문제를 해결해보려 하는것은 어리석은 처사이다.

적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지난해의 조국통일운동사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이 아무리 악랄해도 북남관계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능히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과제이며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보장을 위한 사업은 마땅히 민족최대의 숙원을 푸는 통일로 지향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이 바라보는것은 전쟁의 방법으로는 아니라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것이다. 북과 남에 다같이 리익이 되고 접수될수 있는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며 그것은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용기백배하여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우리 식 사회주의발전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일심단결, 자력갱생대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의 시기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한생이 어린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필승의 신념과 강인담대한 배짱, 불철주야의 애국헌신으로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는 무한한 영광을 지니게 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끝없는 걱정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를 대표하여 탁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새 역사를 펼치시고 인민대중 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사회주의조선의 정치사상적힘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성스러운 투쟁행로우에 특기할 대변혁, 대승리만을 아로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또다시 높이 모신 력사적인 시각 전체 대의원들과 회의참가자들은 크나큰 걱정과 환희에 넘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리쳐올리면서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삼가 드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것은 우리 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중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대정치사변이며 태양조선의 무궁한 미래와 민족만대의 번영을 담보하는 혁명적 대경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비범한 정치실력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선로동당과 우리 국가를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후손만대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주신 원수님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열화와 같은 흠모와 신뢰심의 발현이다.

은 나라 전체 인민은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시고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봉쳐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총매진함으로써 이 땅우에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꽃피어나는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김정은은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주체108(2019)년 4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은원수님께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는 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사회주의 건설이 매우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선 시점에 소집되었습니다.

전체 인민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적극적인 참가 밑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공화국정부가 새로 조직됨으로써 우리 국가주권은 가일층 강화되고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사회주의의 더 높은 단계를 향하여 확신있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진군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될것입니다.

나는 모든 대의원동지들이 전체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나에게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다시 국가의 전반사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커다란 믿음을 표시하여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며 공화국의 발전, 번영과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을 엄숙히 맹약합니다.

동지들!

은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중대한 력사적임무입니다.

은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최고강령이며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입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우리 공화국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고 수령님과 장군님

의 뜻과 념원대로 우리 인민의 자주적 요구와 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은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해나갈것입니다.

1

동지들!

은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화를 실현하는데서 우리앞에 나서는 기본투쟁과업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수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적단계이며 그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국가건설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수 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국가건설사상에는 우리 공화국을 력사상 가장 존엄하고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집대성되어있으며 국가정권을 정치적 무기로 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국가건설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나라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자주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국가건설사상에서 중핵을 이룹니다. 사회주의의 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기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할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를 조선혁명의 생명으로, 국가건설의 근본초석으로 내세우고 사대와 교조, 외세의 강권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며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으로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되고 발전하여왔으며 오늘도 자주의 강국으로 세계에 그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습니다. 최근년간 제국주의와의 결사적인 대결속에서 병진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하고 평화로 향할 정세흐름을 주도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영향력은 날로 강화되고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제 마음대로 룬락하는 제국주의의 행태가 그 어느때보다 로골화되고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 공화국과 같이 자주적대가 강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자력으로 담보해가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립장입니다.

우리 나라는 지리적으로 대국들 사이에 위치하여있고 의연히 국도가 분열되어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억제하고 약화시키며 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가중되는 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지역적, 세계적범위에서 패권쟁탈을 위한 령강들의 모순과 대결도 한층 격화되고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특수한 환경과 오늘의 복잡한 세계정세속에서 공화국이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참다운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확고한 자주적립장에서 자기 힘을 강화하고 자립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세계사회주의진영이 존재하고 크건작건 나라사이의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던 지난 시기에 혁명과 건설에서 독자성과 자주성을 견지하여왔으며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의 건설을 전진시켜왔습니다. 자주의 혁명로선을 틀어쥐고 자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이 변함없이 견지하여야 할 국가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됩니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동풍이 불어오든 서풍이 불어오든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리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것이며 모든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면서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것입니다.

자주의 혁명로선을 국가건설과 활동에 구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하것은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나가는것입니다. 우리는 인민들을 위대한 주

체사상, 민족자주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나라의 정치사상진지를 철동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경제와 국방, 문화의 모든 분야를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며 남의 식, 남의 풍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을것입니다.

당과 인민대중이 통일단결되어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기초우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전도는 밝고 양양합니다.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할데 대한 정치리념입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주체의 혁명철학이 구현되어있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투철한 립장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인민은 사회주의국가의 뿌리이고 기반이며 그 발전의 담당자입니다. 당과 정권기관들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실현하고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데 철저히 지향복종되어야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주의의 생명력과 우월성이 높이 발휘될수 있습니다.

국가활동에서 인민을 중시하는 관점과 립장을 견지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과정에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와 같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들이 나타날수 있는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인민우에 군림하여 인민이 부여한 권한을 악용하는 특권행위는 사회주의의 영상과 인민적성격을 흐리게 하고 당과 국가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약화시켜 사회주의제도의 존재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한평생 인민을 하를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념위천의 숭고한 사상과 뜻을 계승하고 높이 받들어나가기 위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였으며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당과 국가활동에 구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웠습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립장이 응축되어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사회생활전반에서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함으로 모든것을 아낌없이 돌려왔습니다. 최근년간 우리 국가가 거창한 대건설사업들을 통이 크게 벌리고있는것도 결코 나라에 자금이 남아돌아가서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입니다.

(4면으로 계속)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하여

(3면에서 계속)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투쟁을 국가존망과 관련되는 운명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그와의 단호한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강도높은 투쟁을 벌리도록 하였습니다.

당과 국가활동, 사회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당과 국가와 인민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으며 우리 공화국은 튼튼없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자기의 발전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될수록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더 큰 힘을 넣어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하고 남들이 모방할수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고유한 우월성을 계속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합니다.

당과 국가는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고 인민들은 당과 국가에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며 진정을 다해 만드는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우리 국가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근본중의 근본으로 변함없이 확고히 틀어쥐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인민이 리상하는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입니다.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백방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국가건설의 본성적요구이며 국가활동의 생명선입니다. 사회주의국가인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의 체현자인 당의 령도밑에서만 인민의 복부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지역에 대한 통일적지도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옹바로 조직진행해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적당의 령도가 보장되지 못한 사회주의정권은 자기의 본색을 잃고 반동들과 음모군들의 통각물로 전락되게 되며 결국은 인민들이 정치적으로야 불행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 당은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이끌어오는 과정에 풍부한 경험을 쌓고 높은 령도적수완과 능력을 소유한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입니다. 적대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을 이끌어어나가면서 세계가 팔목하는 기적적승리들을 련이어 안아오고있는 우리 당의 령도는 인민들에게 무한한 긍지와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주고있습니다.

국가활동에 대한 당의 령도는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당은 사회주의정권이 나아가길 지침을 안겨주고 모든 국가활동을 옹바로 진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항도적력량이며 국가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 관철자입니다. 당과 정권의 이러한 호상관계로부터 우리 당은 국가활동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함에 있어서 모든 당조직들이 자기 부분, 자기 단위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지도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정치적령도기관인 당이 행정사업에 맡겨지고 실무적방법에 맡달리면 자기의 본도를 잃게 되는것은 물론 행정기관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며 결국은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을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국정권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인 지도사상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원만히 실현하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당의 사상과 령도에 충실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이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야 합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밝혀준 사회주의국가건설 사상과 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우리 공화국은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 강국, 인민의 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인민의 국가로, 무한대 발전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위대한 나라로 보다 훌륭히 건설될것이며 사

회주의위업의 승리는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입니다.

2

동지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우리 공화국앞에 나서고있는 중심과업은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것입니다.

경제적자립은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입니다.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정세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핵무장력의 급속한 발전현실앞에서 저들의 본토안전에 두려움을 느낀 미국은 회담장에 나와서 한편으로는 관계개선과 평화의 보따리를 만지작거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가 가는 길을 둘러세우고 선 무장해제, 후 제도전복야망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 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함시적인 제재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왔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에 만성화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혁명의 전진속도를 조금도 늦출수 없습니다.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수 없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할지라도 그자체가 우리에게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인것만큼 결코 그것을 용납할수도 방관할수도 없으며 반드시 맞받아나갈 것 못개버려야 합니다.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최단기간내에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선진수준에도 도약할수 있는 자립적발전 능력과 기반이 있습니다. 수십년간 다져온 자립경제태도와 능력있는 과학기술력량, 자력갱생을 체질화하고 애국의 열의로 피끓는 영웅적인민의 창조적 힘은 우리의 귀중한 전략적자원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하고도 무한한 잠재력을 총폭발시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신화를 창조해야 하며 남들을 앞서 더 높이 비약해나가야 합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우리는 남들이 가능할수도 상상할수도 없는 힘으로 놀라운 발전상승의 길을 내달리게 될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세우고있는 전략적방침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는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담보로 되는 동력과 연료, 원료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이미 있는 동력기지를 정비보강하여 생산을 최대한 늘이고 전력공급을 과학화, 합리화하며 수력과 조수력, 원자력을 비롯한 전망성있는 에너지를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더 많은 발전능력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경제발전의 척후전구인 탄광, 광산들에서 탐사와 굴진을 앞세우고 채굴과 운반의 기계화실현에 힘을 집중하여 공업의 식량인 석탄과 광물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급속공업부문에서 주체철생산기지를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하고 정상운영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현대적이고 대규모적인 철생산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화학공업을 철저히 우리의 원료와 자원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 에너지를 절약형, 로력절약형공업으로 전환시켜 비료와 화학섬유, 합성수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먹는 문제와 소비문제를 최단기간에 풀어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 종자와 비료, 물문제와 경지면적보장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고 과학적농사방법을 받아들이며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여 당이 제시한 압록고지를 무조건 점령하여야 합니다. 닭공장과 돼지공장을 비롯한 축산기지를 현대적으로 신설, 개건하며 집집승사양관리를 과학화하고 군중적으로 풀먹는집집승기르기를 근기있게 내밀어야 하며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태도를 강화하여 수산물생산과 가공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정공업공장들에서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함께 재자원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소비품이 더 많이 차려지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대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건설부문에서는 건축설계와 건설공법을 혁신하고 건설단위들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여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며 건설공업부문에서 세멘트생산능력을 확장하고 마감건재의 국산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철도수송과 배수송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며 수도와 도소재지들의 려객운수문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보다 개선완비하고 모든 부문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며 마그네사공업과 흑연공업을 비롯하여 전망성있는 경제분야들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합니다.

기계제작공업, 전자공업과 정보산업, 나노산업, 생물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집중하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생산공정의 자동화, 능동화, 무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어미공장, 표준공장을 꾸리고 일반화하여 경제전반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며 대외경제사업을 활성화 하여야 합니다.

도, 시, 군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자연지리적우선과 경제기술적 및 전통적특성을 옹호 살려 지역적특색이 있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지방이 자체로 일떠서고 발전해나갈수 있게 권한을 주고 실무적대책을 따라세워야 합니다.

대외경제부문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에 철저히 립각하여 나라의 경제태도를 강화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부분과 고리를 보충하는 방향에서 대외경제협조와 기술교류, 무역활동을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책략있게 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나라의 모든 인적, 물질자원과 가능성을 통일적으로 조직동원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요소와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사업을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통제, 전략적인 작전과 지휘밑에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단계별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며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원만히 실현하면서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조직진행해나갈수 있도록 기구체제와 사업체제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제도적, 법률적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며 경제기관, 기업체들이 국가의 리익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우선시키고 정해진 법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보다 개선하고 경제관리의 중요고리들인 가격, 재정, 금융문제를 경제원리와 법칙에 맞으면서도 현실적의의가 있게 해결하여 기업체들과 생산자들이 높은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을 과학적타산에 기초하여 최량화, 최적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원료와 자재, 자금과 로력을 극력 절약하고 지출의 효과성을 높여 나라의 모든 자원이 국가발전에 최대한으로 이바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동력은 인재와 과학기술입니다.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되게 하며 인재를 널리 찾아 적체적소에 등용하고 생산과 기술발전을 주도해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끊임없이 늘여야 합니다.

전략적이고 핵심적이며 실리있고 경제적의의가 큰 중요과학기술연구과제와 대상들을 바로 정하고 역량과 자금을 집중함으로써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과학기술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정치사상적힘은 사회주의국가정치체제의 우월성과 공고성에 바탕을 두고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권리와 존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며 온 나라가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단합되어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제도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인민의 이익을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세우고 집행함으로써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국가정치에 참다운 주인으로서 국가사회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정치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며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 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데 맞게 당정책적요구에 립각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법규범과 규정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하여 과학적으로 제정완성하고 제때에 수정보충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인 정치실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에 사회주의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전체 인민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며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법집행에서 이중규율을 허용하지 말며 법집행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과 신중성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위적국방력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수호의 강력한 보검입니다.

오늘 조선반도에 도래하기 시작한 평화의 기류는 공고한것이 아니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의 침략기도가 사라진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평화가 보장된다는 철리를 항상 명심하고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질자원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보장하며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완벽하게 실현하여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갈것입니다.

사회주의문화를 우리 식으로 개화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5면으로 계속)

현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4면에서 계속)

국가적으로 교육을 최우선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우리 식의 교육혁명을 다그쳐 발전된 나라들의 교육수준을 따라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을 떠메고나갈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야 합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근로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지식근로자로 키워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보건사업에 특별히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의료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의학과과학기술을 첨단수준에 올려세우며 보건부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인민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더 잘 받아안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부문에서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창조하며 특히 영화부문에서 새 세기 영화혁명의 불길을 일으켜 사회주의문화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어나가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체육은 나라의 국력을 다지고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떨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체육과학과 전문체육기술을 발전시키고 대중체육활동을 널리 조직진행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국제경기들도 원만히 치를수 있게 체육시설들을 늘리고 현대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있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생활양식과 도덕기강을 확립하는것은 우리 사상, 우리 제도를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심각한 정치투쟁이며 첩예한 계급투쟁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 우리 문화가 제일이고 우리의 생활양식과 도덕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집단주의적생활기풍과 도덕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문명발전을 지향하는 오늘의 시대적미감에 맞는 우리 식의 혁명적이고 광만적인 생활문화를 적극 창조하고 널리 향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침식하고 사회를 변질타락시키는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들의 자그마한 요소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지고 사상교양, 사상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며 법적투쟁의 도수를 높여 우리 국가의 사상문화진지를 굳건히 수호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업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가일층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정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고 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특히 정권기관 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우선시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지역을 장악하고 통일적으로 지도하면서 개별적부분과 단위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자기의 본분에 맞게 인민대중을 위하여 열사복무하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늘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작전하고 설계하며 인민이 바라는 일을 찾아 끝까지 실천하고 인민대중을 발동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사업에서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도 변함없이 고수하여오신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를 비롯하여 우월한 인민적시책들을 정확히 실시함으로써 인민들이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움을 생활을 통하여 실감하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당의 령도밑에서만 사업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당의 사상과 방침을 자로 하여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하며 당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당이 제시한 혁명업무를 충실히 집행함으로써 우리 당정책의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권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집체적지도를 심화시키며 모든 일군들이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책

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각급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의 백천 현실은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총공세의 앞장에서 과감한 투쟁을 벌려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높은 당성과 혁명적원칙성을 지니고 맡은 사업을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대담성과 적극성이 당을 믿는 마음에서 생긴다면 소심성과 눈치놀음은 당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데서 나옵니다. 일군들은 당에서 밀어주어야만 일 자리를 내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업태도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하며 당에서 준 과업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는 강인한 혁명가적본성을 지녀야 합니다. 일군들은 착상력과 조직력, 장악력과 지도력, 전계력을 부단히 키워 어떤 과업도 막힘없이 해제기는 사업의 능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군중공작방법을 체득하고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적의 기풍을 발휘하며 인민들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참뜻을 심장에 쏘아박고 인민앞에서 무한히 겸손하여야 하며 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한몸을 강그리 바치는 인민의 참된 총복이 되어야 합니다.

3

동지들!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역사투쟁은 오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최대의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실현할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련속 취해나가고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3차례 걸쳐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을 진행하고 북남선언들을 채택하여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것은 각각각 전쟁의 문어구로 다가서는 엄중한 정세를 둘러세우고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령정의 출발을 선언한 대단히 의미가 큰 사변이었습니다.

지금 온 민족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리행되어 조선반도의 평화적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나가기를 절절히 바라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앞에 너무나 부실한 언동으로 화담하고있으며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발표이전시기로 되돌려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속도조절》을 로फल적으로 강박하고있으며 북남합의리행을 저지하는 대조선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앞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에로 치달던 과거에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 사태를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맞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합니다.

이미 천명만화와 같이 남조선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는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둡니다.

조성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수습하고 북과 남이 힘있게 마련한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것이 평화와 통일의 의미있는 결실로 빛을 보게 하자면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근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나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판문점상봉과 9월 평양상봉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리행으로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자면 적대적인 내외반동일, 반평화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셔 버려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일관한 주장입니다.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폐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일방적인 강도적요구를 전면에 내들고 관계개선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있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때늦기 전에 깨닫는것이 필요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를 걸고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에도 향한 력사적 흐름에 도전해나서는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란시켜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립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승연히 새기고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진지하고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갈것입니다.

동지들!

세계의 각광속에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불과불이 오가던 조선반도에 평화정착의 희망을 안겨준 사변적계기였으며 6.12조미공동성명은 세기를 이어오며 적대관계에 있던 조미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력사를 써나간다는것을 세상에 알린 력사적인 선언인것으로 하여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습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증지를 비롯한 중대하고도 의미있는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여 조미적대관계해소의 기본열쇠인 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떼었으며 미국대통령이 요청한 미군유골송환문제를 실현시키는 대범한 조치도 취하여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리정표로 되는 6.12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려는 의지를 과시하였습시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은 우리가 전략적결단과 대응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났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잇기는 있는가 하는데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한 계기로 되었습시다.

우리는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6.12조미공동성명리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와 경로를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부합되게 설정하고 보다 진중하고 신뢰적인 조치들을 취할 결심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화담을 기대하였습시다.

그러나 미국은 전혀 실현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습시다.

다시말하여 우리를 마주하고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가 안되어있었으며 독특한 방향과 방법론도 없었습시다.

미국은 그러한 궁리로는 백번, 천번 우리와 다시 마주앉는다 해도 우리를 까딱도 움직이지 못할것이며 저들의 리속을 하나도 쟁길수 없을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요격을 가상한 시험이 진행되고 미국대통령이 직접 증지를 고향한 군사연습들이 재개되는 등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역행하는 적대적움직임들이 로फल화되고있으며 이것은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마련이듯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로फल될수록 그에 화담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또다시 생각하고있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시사하고있지만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근본방도인 적대시정책철폐를 여전히 외면하고있으며 오히려 우리를 최대로 압박하면 굴복시킬수 있다고 오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려고 하는 미국식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습니다.

미국이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대한 적대감을 날로 더 고조시키는것은 기쁨으로 붙는 불을 진화해보겠다는것과 다를바 없는 어리석고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조미사이에 뿌리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해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리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개최에 대해 많이 말하고있는데 우리는 하노이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수뇌회담이 재현되는데 대하여서는 반감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는바와 같이 나와 트럼프대통령사이의 개인적관계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있으며 생각하면 아무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그 무슨 제재해제문제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올해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것입니다.

앞으로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띄어져야 나는 주저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명백한것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것이며 매우 위험할것입니다.

나는 미국이 오늘의 관건적인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기대하며 가가스로 뭇침세워놓은 조미대결의 초침이 영원히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의 뉴대를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며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 평화호력량과 굳게 손잡고 나아가것입니다.

동지들!

방금 말했지만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문제따위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것입니다.

우리의 투쟁목표는 방대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앞길에 의연히 도전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자력으로 부강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강국의 리상과 목표를 실현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자주의 길에 번영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제힘으로 앞길을 개척해나가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닌 국가와 인민의 도도한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돌려세우거나 뭇침세우지 못합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업무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총진격해나가갑시다.

민족의 단합을 위해 바치신 거룩한 생애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뜻이고 념원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민족대단결실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었다.

외세의 책동에 의하여 민족분열이 고조될 위험이 날로 짙어가던 주제37(1948)년 4월 평양에서 소집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 련석회의는 수령님의 발기와 크나큰 심혈에 의하여 마련된 력사적인 민족적회합이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그가 누구이든 과거지사를 불문하고 손을 잡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대단결의 리념에 매혹되고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에 감복하여 김구, 김규식, 조소앙, 엄항섭, 조완구, 최동우 등

남조선의 많은 정객들과 각계인사들이 련석회의에 참가하였다.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폭넓은 민족적대회합이 마련되고 이 회합에서 일치한 합의를 이룩하여 거주적인 애국투쟁을 벌리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평양의 대동강만 속집에 세워져있는 통일전선탑은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대단결실현을 위해 기울인 신실,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길이 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시고 더욱 강화하시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그 위력은 민족대단결에 있다. 주체적통일력량이 튼튼히 마련될 때 조국통일업의 승리가 확고히 담보된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정신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국통일업에 복종시키는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바세우시였으며 넓은 도량과 아량있는 포용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그 통일이국의 넓은 품을 찾아 문익환, 최홍희, 윤이상, 최덕신, 문명자 등 남조선과 해외에서 각이한 생활경위와 직업, 정견과 신앙을 가진 동포들이 평양을 찾아왔다. 국사로 다망하신 속에서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을 만나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민족의 단합열기, 통일기운이 높아가던 주제80(1991)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화국을 방문한 전 세계평화련합총재 문선명선생을 만나시었다.

그이께서는 총재선생이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공화국을 방문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며 그를 반갑게 맞으시었다. 집견선생은 문선명선생은 그이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면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는 주석님의 로작을 읽어보고 평양을 방문할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 올리였다.

그의 공화국방문동기에 대하여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시금 정말 반갑다고 하시며 그의 방문을 환영하시었다.

문선명선생은 주석님께서서는 극과 극의 위치에 있는 본인을 넓으신 도량과 아량으로 초청하여주시고 친히 만나주시였는데 이것은 보통 용단을 가지고서는 할수 없는 일임을 잘 알고있다고 하면서 주석님의 참사랑과 인격이 매우 위대하다고 자신의 소회를 피력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에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작성하시어 겨레에게 민족대단결의 소중한 기치로 안겨주시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그 실천적경험의 총화이며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민족대단결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은 온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주제70(1981)년 6월 조국을 방문한 조국통일촉진회 회장 김성락목사를 만나주시는 수령님께서서는 선생이 미국에서라도 애국활동을 계속하셨다고, 선생과 같은 애국지사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수 있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의 력사적근원과 그 해독성에 대하여, 조국통일을 반드시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실현할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주제79(1990)년 8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고국을 방문한 이진 소련에서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을 만나시었다. 조선속에는 재소조선인로병회 고문으로 활동한 박영빈도 있었다. 그날 조선인로병들을 만나기 맞으신 수령님께서서는 본인들은 다 잘 있는가, 자녀들은 몇이나 되는가고 안부를 물으시며 생활현안에 대해서도 일일이 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조국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세운 그들의 공로도 평가하여주시었다.

그 자리에서 박영빈동포는 자기들의 공로높이 평가하시는 수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었다. 그의 진정을 고맙게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박영빈동포는 나의 동지이며 친구이며 친우라고 하시면서 그의 건강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심장부담이 커서 고생한다는 박영빈동포의 말을 들으시고 그에 게 지금 여든세살인데 앞으로 10년은 더 일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의 인사를 만류하시며 고국의 향취가 나는 음식물을 한가지라도 더 들여보라고 권하시었다.

김성락목사는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힘이 생긴다고 하면서 이번이 공화국의 현실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을 잘 알게 된것만큼 미국 정계인사들에게 전달할것이며 해외교포 인사들과도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이번에 조국레왕의 길을 열어놓은것만큼 앞으로 자주 조국을 방문하는것이 좋겠다고, 다음번부터는 부인과 아들딸들을 데리고 조국을 방문하는것이 좋겠다고, 나는 앞으로 선생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많이 노력하리라고 믿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고무격려해주시었다.

그 다음해 10월 조국을 방문한 그를 또다시 만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선생은 오래 앉아있어야 한다고, 선생과 같은 애국지사들이 오래 앉아있으면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할것을 기대하고있다고 하시며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다음해 또 선생과 부인이 아들, 딸, 며느리, 손자들을 데리고 조국을 방문하여 휴식도 하고 자식들이 조국에 대해서도 잘 알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뜨거운 옥천의 정을 기울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 해외동포음악가의 재능과 소원을 헤아리시어 평양에 그의 이름을 딴 음악당을 세우도록 하시고 음악회도 열도록 보살펴주시였으며 음악연구소도 개설하도록 하시었다.

평양의 신미리에국립사롱에서 최덕신, 최홍희를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영생하는 삶을 누릴수 있게 된것을 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의 일원이자라든가 애국같은 덕망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그 품을 못 잊어

어느 한 나라 국가수반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열차로 평양역에 도착했다. 나는 그때 역구내 환영군중속에 있었다. 환영곡과 만세소리가 울리는 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가수반을 맞이 하시려고 역구내에 나오시었다. 맨 앞줄에 서있던 나는 수령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

온 민족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업을 추동하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주제80(1991)년 8월 어느 날이었다.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업을 실현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할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하는것이라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온 민족이 화

합경남도 단천 땅에서 태어난 나는 김일성장군님의 신화같은 빨찌산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했다. 어린 내 마음속에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호모심이 자리잡고있었다.

그때로부터 내 인생에서 기쁨과 슬픔, 힘듦과 어려움 때면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환하신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존귀하신 영상은 내 마음속을 가득하고 뽀얀 인생길을 걸도록 인도해주었다. 조국통일의 길에서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는 길에 참다운 애국이 있고 빛나는 삶이 있으며 통일도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했다. 전향문은 수표하고 감옥에서 나오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 짧은 유희과 별개의 순간을 버리고 통일신념과 량심의 기나긴 34년을 택했다. 전향을 강요하는 고문대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김일성장군님의 영상을 그려보면 힘과 용기가 치솟아 모진 악형을 꿋꿋이 이겨낼수 있었다.

내 소원은 애오라지 위대한 수령님을 다시 뵈옵는것이였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 나는 금수산기념궁전(당시)에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인사

를 올렸었다. 그때 내 심정을 한자한자 방문록에 담았다.

《차디찬 감방에서 당신은 우리의 심장을 불태운 태양

교수대에서도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웨쳤고

기쁨 때나 슬픔 때나 그 일마나 《김일성장군 만세!》를 불렀던가

늦게 돌아온 전사들은 그 품이 그리워 눈물흘립니다

내 죽어 한줌 흙이 되어 당신을 항상 우러르는 해바라기꽃을 피우렵니다

주제90(2001)년 7월 8일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내 운명의 태양으로 심장속까지 보냈기에 나는 불굴의 통일애국투사가 되어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물으면 《항해하는 배가 동태없이 항해할수 없는것처럼 배 개인에게도 인생을 인도하는 태양이 있어야 한다. 그 태양을 따르는 길이 곧 인생성공의 길이다.》고 대답해주곤 한다.

김동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높이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자!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에 대한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슬하를 떠난 자식이 어디에 가 밥술은 제대로 드는지, 옷은 철따라 입는지, 얹지는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지 늘 원심을 기울이는것이 부모의 정이다.

한평생 애국, 애족을 삶과 투쟁의 본령으로 삼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열렬한 민족애, 동포애의 손길은 이역에서 사는 해외동포들에게도 뜨겁게 닿아있다.

이역땅에서 사는 재일동포들을 위해 새로운 국가예산 항목을 마련해주신 이야기는 오늘날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주제46(1957)년 1월 평양에서는 그해 국가예산을 토의하는 내각집권회의가 진행되었다. 전권회의를 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보고를 한 일군에게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어느 항목에 넣었는가고 물으시었다.

물을 뿌린듯 조용하던 장내가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처음 들어보는 국가예산항목이었던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전쟁의 참혹한 피해가 채 가시지 않았으므로 하여 나라의 재정사정이 매우 어려웠다. 그 일군은 잠시 망설이다가 예견은 했으나 올해 재정사정이 너무 긴장해서 형편이 허락되는 차제로 보내주기로 했다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이것은 우리의 민족적의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것은 한두번 보내주고 그만 둘 일이 아니라 일본에 우리 동포가 있고 배워야 할 어린이가 있는 이상 계속 보내주어야 한다고, 때문에 국가예산에 새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항목을 내오고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국가예산항목에는 그 어느 나라에도 있어

이역에 사는 동포들을 한 품에 안아주시며

본적이 없는 항목이 정해지게 되었으며 이 항목은 긴긴 세월을 이어 오늘도 어김없이 집행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의 동포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주제79(1990)년 8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고국을 방문한 이진 소련에서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을 만나시었다. 조선속에는 재소조선인로병회 고문으로 활동한 박영빈도 있었다.

그날 조선인로병들을 만나기 맞으신 수령님께서서는 본인들은 다 잘 있는가, 자녀들은 몇이나 되는가고 안부를 물으시며 생활현안에 대해서도 일일이 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조국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세운 그들의 공로도 평가하여주시었다. 그 자리에서 박영빈동포는

자기들의 공로높이 평가하시는 수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었다.

그의 진정을 고맙게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박영빈동포는 나의 동지이며 친구이며 친우라고 하시면서 그의 건강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심장부담이 커서 고생한다는 박영빈동포의 말을 들으시고 그에 게 지금 여든세살인데 앞으로 10년은 더 일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의 인사를 만류하시며 고국의 향취가 나는 음식물을 한가지라도 더 들여보라고 권하시었다.

김성락목사는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힘이 생긴다고 하면서 이번이 공화국의 현실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을 잘 알게 된것만큼 미국 정계인사들에게 전달할것이며 해외교포 인사들과도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런

수필

4월의 의미

4월이다. 대지는 생기를 품은 파란 새싹들을 다투어 내밀고 나무들은 봄의 훈향을 기지개를 켜는듯 아지를 펼친다. 그 아지마다에 푸른 새잎이 돌아오고 언제 퍼왔는지 노란 개나리는 봄의 정기를 한껏 뽐내어준다.

가버이 불어오는 바람결에 마음조차 흥그려워지는 계절, 봄은 그 부름만으로도 누구에게나 따뜻한 계절이다.

봄의 향취에 이끌려 모란봉에 오르니 평양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는듯 마음은 한결 더 가벼워졌다. 대동강기슭을 따라 길게 놓여있는 금수산에 최승대를 중심으로 서로 잇달려 솟아있는 산봉우리들의 모양이 마치 금시 피어오르는 모란꽃을 방불케 한다 하여 그 이름도 모란봉, 함박배로도 불리었다는 여기 모란봉은 마치 한폭의 그림을 띤 상쾌하다. 최승대와 흥부골에 활짝 피어난 진달래꽃을 보며 동심의 노래를 읊으며 봄의 선구자들 노래한 어느 시인의 시를도 음미해보고 봄물이 오든 나무들 사이를 오가며 지저귀는 딱따구리며 이름들 새들의 제물을 보며 동심에도 잠겨보던 나의 눈앞에 모란봉의 남쪽마루에 자리잡고있는 모란봉극장이 한눈에 밝혀졌다.

어느덧 숙연해지는 나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거룩한 영상이 안겨졌다. 1948년 4월, 해방된 조국

를 올렸었다. 그때 내 심정을 한자한자 방문록에 담았다.

《차디찬 감방에서 당신은 우리의 심장을 불태운 태양

교수대에서도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웨쳤고

기쁨 때나 슬픔 때나 그 일마나 《김일성장군 만세!》를 불렀던가

늦게 돌아온 전사들은 그 품이 그리워 눈물흘립니다

내 죽어 한줌 흙이 되어 당신을 항상 우러르는 해바라기꽃을 피우렵니다

주제90(2001)년 7월 8일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내 운명의 태양으로 심장속까지 보냈기에 나는 불굴의 통일애국투사가 되어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물으면 《항해하는 배가 동태없이 항해할수 없는것처럼 배 개인에게도 인생을 인도하는 태양이 있어야 한다. 그 태양을 따르는 길이 곧 인생성공의 길이다.》고 대답해주곤 한다.

김동기

다른 문제들은 자연히 쉽게 해결될수 있을것이라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 민족은 북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있던 관계없이 그리고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군인 할것없이 모두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

김정은

2018. 4. 27》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방명록에 남기신 이 고귀한 친필에는 이 땅에 거이여 평화번영과 통일의 밝은 미래를 펼쳐가시려는 그이의 억척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판문점분리선을 한걸음에 성큼 넘으시며 금단의 선, 분단의 벽을 순간에 허무시던 력사의 그날부터 4월은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통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북돋아주는 따뜻한 4월로 더욱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그렇다. 우리 겨레에게 있어 4월은 자연의 따스함만으로 오지 않는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의 민족사적위업을 반드시 안아오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분노는 뜨거운 통일외지로 오는 봄이기에 겨레에게 더욱 따뜻하고 환희로운 4월이다.

계절의 봄은 왔다가도 하지만 겨레의 마음속에는 4월은 통일의 봄으로 길이 새겨지게 되리라. 나는 마음속에서 후회되는 봄의 훈향을 다시금 음미해보며 이 땅에 밝아올 통일조국의 래일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김진홍